

MorningCalm

DECEMBER 2013



KOREAN AIR

CONTENTS DECEMBER 2013 · VOLUME 37 · No 12



ON THE COVER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석장 기능보유자
이재순 선생이 만든 '석호(石虎)'(3차 7사12제)

A seokho, or stone tiger, stonework carved by
Lee Jae-soon, practitioner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20 (Cover Story, page 62)



08 AT DAWN

아침햇살

Sacred Sheen

10 ESCAPES

호주 남동부 그레이브 오션 로드 주변 풍경

Rites of Passage

평생에 한번 가 볼 만한 곳 제20회 그레이브
오션 로드.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 주 접안가를
거느리는 약 250킬로미터의 도로, 남쪽의
파도와 바람이 만든 풍경, 석회암 절벽부터
우림, 해변까지 남동부 연안의 장관 스펙터

The Great Ocean Road covers 250km
along the coastline of the Australian state of
Victoria. This long road takes in remarkable
natural scenery, with beaches and cliffs on
one side, and lush rainforest on the other.

TRAVEL

24 SPECIAL DESTINATION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소치

Preparing for 2014

평생에 한번 가 볼 만한 데다 여행지 제20회,
소치. 러시아 남서부 흑해 연안, 그루지야 인근의
전통 휴양 도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소치의 매력 포인트와 주요 명소 가이드북.

The sporting world's spotlight will shine
on the city of Sochi when the 2014 Winter
Olympics begin in February. But Russians
have had a love affair with this Black Sea
coast resort town for decades.

36 UNKNOWN WORLD

스웨덴 요코모크의 사이 록 마을

Land of the Reindeer

44 SEOULITE

부암동 서울미술관

Exquisite Exhibits

52 HIDDEN KOREA

시암가 호르는 섬, 폭포 삼척도

Shoreline Sensation

스웨덴 요크모크의 사미 족 마을

Land of the REINDEER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 주의 요크모크, 북극권에서 1년 내내 세하얀 눈으로 뒤덮인 이 지역의 주민은 지난 400년간 순록과 동고동락해온 사미 족이다.

For over 400 years, indigenous Sámi have gathered in the snow-coated subarctic village of Jokkmokk, Sweden, to celebrate the reindeer.



벌드 하세의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얼음장 같은 공기를 가른다. “와서 고기 맛 좀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두툼한 털옷으로 감싼 그가 잘 갈린 칼로 ‘피르카트 세트’라 불리는 말린 육포를 뜨며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게 뭐가요?” 한 입 크기로 육포를 자르고 있는 그의 아내 겐마가 스웨덴어로 물었다. “곰 고기”로 만든 육포라고 말하는 그녀는 색깔이 시커먼 육포 조각을 삼키는 나의 반응을 재빠르게 살폈다.

“맛이 나쁘지 않네요.” 나는 담백한 곰 고기 육포를 씹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벌드 하세의 육포를 맛본 다음엔 알 마리에의 가판대로 향했다. 그녀가 집에서 만들었다는 마멀레이드가 가판대 위에 가득했고, 그 옆에선 또 다른 사미족 살인이인 릴리카 뿌리와 북유럽산 허브로 만든 약용 연고를 팔고 있었다. 영하 15도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계속 손을 문지르고 있는 내게 알 마리에가 익숙스레 말을 건넸다. “손이 좋으시네요, 작년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유럽 최북단 지역 라플란드의 햇속까지 스미는 추위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요크모크에 와보니, 환상적인 겨울 풍경과 함께 극지방의 길고 긴 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오로라는 불문이고 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토착민 문화가 마치 선물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한번 맛보세요.” 이곳에서 몇 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는 알 마리에가 마멀레이드 병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녀는 팔기와 대항(大商)으로 만든 마멀레이드 병을 열어 한 숟갈 가득 뜬다. “대항은 이웃들이 준 거예요. 제가 마멀레이드를 만든다는 걸 알고 이웃들이 뒷밭에서 대항 줄기를 꺾어 가져다주곤 한답니다.” 대항은 물론 바닐라와 친도 복숭아로 만든 마멀레이드를 맛본 뒤 한 병 사 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숏길 길은 강추위가 몰아치는 스웨덴 북단, 북극권의 국경 마을인 요크모크에는 주민 약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난 400년간 사미족 고유의 축제를 열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시장을 형성해왔다. 매년 2월이 되면 수천 명의 사미족 주민을 포함해 여행객들이 요크모크 마을을 방문한다. 사미족은 북극 지역과 ‘사르미’로 통칭되는 아(亞)북극 지대에 거주하는 약 7만 명의 원주민을 말한다. 아북극 지대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및 러시아 골라 반도를 아우르는 북극권 부근 지역을 말한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열린 시장에서는 순록, 가죽, 모피, 수공예품, 약용 허브 등 다양한 물품이 교환됐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미족이 모여드는 이곳 요크모크에는 사미족 문화 박물관인 ‘아이데’도 있다. 또 사미족의 민속춤, 오들송과 비슷한 노래인 요이링, 순록 경주, 패션쇼 등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토속 음식과 사미족의 수공예품을 알리는 두오이 장인의 숭배까지 경험해볼 수 있으니, 요크모크 마을은 그야말로 북유럽 사미족 문화의 집결지라 하겠다.

A deep bellowing voice yelling in Swedish cuts through the chilly Arctic air. The man, Wild Hasse, is dressed from head to toe in heavy fur. He is waving a sharp knife in the air while beckoning people to step up and try his dried meat jerky. *törkat kött*. “Come try my meat,” he shouts. His wife is cutting up bite-sized pieces and tells me that it’s bear meat. She watches as I pop a piece of the dark meat into my mouth, and waits for my reaction.

“Not bad at all,” I tell her while chewing this mild-flavored bear jerky. After leaving Wild Hasse, I stroll over to a wooden table where a woman named Ann-Marie is selling stacks of homemade marmalade. Alongside her is another Sámi vendor selling medicinal salves made from angelica root and other Nordic herbs. It is -15C and I’m rigorously rubbing my heavily-gloved hands together to keep warm. “You’re lucky,” Ann-Marie chuckles. “Last year, it got down to 40 degrees below zero.”

Once I’d decided I was willing to brave the bone-chilling temperatures of Lapland, a province in the northernmost part of Sweden, I knew I’d be rewarded with spectacular winter landscapes, rich centuries-old culture, and the Northern Lights shimmering across clear dark skies on long polar nights. “I’ve been selling here for years,” Ann-Marie continues while rearranging jars of marmalade. “You should try this one,” she says as she opens a jar of strawberry-rhubarb marmalade and scoops out a spoonful. “I get the rhubarb from my neighbors. They know I love to make marmalade so they drop by with rhubarb stalks that grow in their yards.” I sample her vanilla-nectarine marmalade and buy a jar.

I am above the Arctic Circle in the border village of Jokkmokk (population roughly 3,000) where the largest indigenous Sámi festival and market in the world has been held for over 400 years. Once February rolls around, more than 30,000 visitors, including thousands of native Sámi, descend upon Jokkmokk. The Sámi are an indigenous people of roughly 70,000 living in the Arctic and subarctic parts of Norway, Sweden, Finland and the Kola Peninsula in Russia — a region collectively known as Sápmi. For centuries, the market served as a trading post for exchanging goods such as reindeer, skins, fur, crafts, as well as medicinal herbs.



△위단 북부 설경을 달리는 인민스바난 열차의 철길 옆 세라핀 눈밭을 가르는 순록 무리의 모습이 동화속 한 장면 같아워 왼쪽) 요크모크 마을에 자리한 유서 깊은 교회 전경(오른 위) 요크모크 사미족 축제 축제 기간 동안, 주민들은 자주 장식한 전통 의상을 입거나 순록 털, 가죽으로 한복을 만든다(아래, 왼쪽)

Dozens of reindeer walk along the Inlandsbanan railroad in northern Sweden (above left). The Jokkmokk Old Church (top right). During the Sámi winter festival, local families wear traditional costumes decorated with embroidery and reindeer skin and furs (above, below, left).



순록 캐리밴 사방이 설원에 둘러싸인 요르모크 마을은 워낙 오지인지를 찾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동쪽으로 1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툴레오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요르모크 오는 동안 절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 바로 얼음으로 뒤덮인 풍경을 자랑하는 예틀란드와 노르보텐을 가로질러 달리는 인란스바난 열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미국적인 '절국열차'에 몸을 싣고 소북이 행인 순록의 눈 아래로 얼음 호수가 점점이 빛나는 풍경을 감상하는 일은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인란스바난의 상징인 붉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열차는 보통 여름에만 운행하지만 요즘에는 한겨울에도 일부 역에 정차하고 있다.

특히 남부 크리스티네하문부터 요르모크 북쪽의 엘리마레까지 약 1300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이 열차를 이용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호 야생구역 라프니아를 통과해 엘리마레에 도착하게 된다. 엘리마레에는 세계 최초의 얼음 호텔이 위치한 유카테르비로 가는 버스가 있다. 1990년에 문을 연 아이스 호텔은 이 지역의 명물이다. 토르레 강에서 얼음을 가져와 매년 재건축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현지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예술가들 초대해 아이스 호텔의 객실을 설계, 조각하도록 하는데, 정교한 얼음 상설리데부터 연막의자, 침대까지 얼음으로 만든다. 아이스 호텔은 언뜻하게 하듯만 보이는 속속스러기보다는 또 다른 관광 명소를 감상한다는 느낌을 선사하는 곳에 가깝다.

"치두르세요!" 안마리에네는 바닐라와 복숭아로 만든 마멀레이드를 넘겨주며 페르의 순록 행렬을 행어 놓칠까 나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말한 것은 이 마을의 대표적인 행사로, 사미족의 원로 페르 쿠무넨이 이끄는 순록 캐리밴 행렬을 말한다. 스노모빌을 이용해 자신의 손자들이 탄 나무 썰매를 끌며 순록과 함께 이동하는 쿠무넨이 첫 번째로 멈춘 곳은 마치 동화 속 파자의 집처럼 생긴 붉은색 교회 건물 앞이었다. 1753년에 지어진 이 교회는 내부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꾸며졌는데 이는 '각티'라 불리는 사미 족 전통 의상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쿠무넨의 가족은 겨울 코트를 벗고 전통 의상에 순록 가죽과 털로 만든 부츠와 장갑, 자수 장식이 된 벨트로 화려하게 몸장식을 한 뒤, 흰 순록이 끄는 나무 썰매를 타거나 걸어서 워킹당당하게 시장을 가로질렀다. 요르모크 시장에서 스노모빌을 타볼 수도 있고, 동풍 언 스카브랄 호수 위로 러스키 게릴라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혹은 요르모크 마을 주변의 자연 속에서 밭새 낚시하는 오르로리 장관을 관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르모크 마을의 구경거리 중 단연 으뜸은 페르 쿠무넨의 순록 캐리밴 행렬일 것이다. ● 글 폴라 아인마레 토레스트로프 사진 마리 도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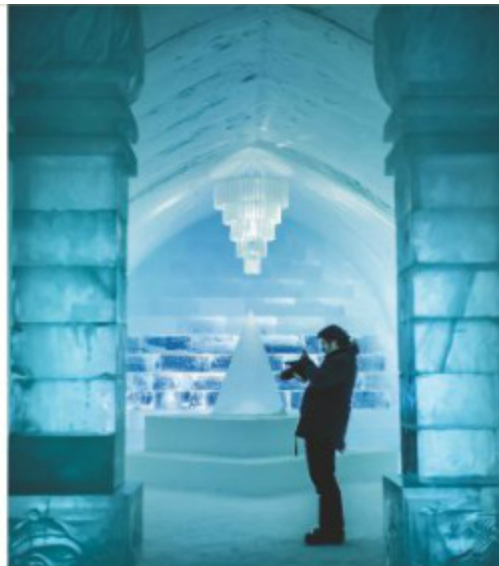
The Reindeer Caravan Today, the event remains the largest Sámi gathering in the world with exhibitions at the Sámi Museum Ájtte, folk dancing and jolking (music similar to yodeling), reindeer racing, outdoor activities, fashion shows, local food and duodji (handicraft) artisans. It is an experience that immerses visitors into one of the world's oldest cultures.

I'd arrived a few days earlier by local bus from the town of Luleå, located 180km southeast of Jokkmokk, but the most scenic way to arrive is via the historic Inlandsbanan, an inland train route, that cuts through ice-covered landscapes in Jämtland and Norrbotten with frozen lakes dotting hauntingly beautiful scenery under thick blankets of pristine white snow. The signature red and white train usually runs during the summer but it now also has a few stops during the winter.

Covering roughly 1,300km from Kristinehamn to Gällivare north of Jokkmokk, it travels through parts of Sweden's UNESCO Heritage-protected wilderness, Lapponia, en route to Gällivare. From Gällivare, you can take a bus up to Jukkasjärvi, home of the world's first ice hotel. Since its inception in 1990, the ICEHOTEL is rebuilt every year with ice from the Torne River.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re invited each year to design and sculpt ICEHOTEL's rooms — from intricate chandeliers to armchairs and beds all made of ice.

"Hurry now," Ann-Marie says as she hands me a jar of marmalade. "You don't want to miss Per and his reindeer." She is talking about the market's iconic event — a reindeer caravan procession led by Sámi elder Per Kuhmunen. Leading his reindeer and grandchildren along on wooden sleds using his snowmobile, Kuhmunen first stops his convoy next to the historic red Jokkmokk Old Church. Built in 1753, the red and blue interior colors of the church are patterned after traditional Sámi tunics called gákti.

Kuhmunen and his family wear embroidered belts, boots and gloves made from reindeer skin and fur while leading their caravan on foot and wooden sleds, drawn through the market by majestic white reindeer. While the Northern Lights are a spectacle to behold, in Jokkmokk, Kuhmunen's reindeer caravan remains the highlight. ● By Laila Aikmaide Åkerström Photographs by Marie Dorigny



스웨덴 남부 크리스티네하문부터 엘리마레를 연결하는 '절국열차' 인란스바난. 유카테르비로 위치한 아이스 호텔. 해마다 한 세계 예술가들이 설계한 얼음 조각이 전시된다. 요르모크 마을에는 겨울이 되면 시장이 열려 사람들이 몰려온다. 요르모크 시장에서 지역의 전통 순록 털을 따는 사미 족 장인인 페르 쿠무넨이 시계 방향으로.

(Clockwise from left above) The Inlandsbanan train line runs between Kristinehamn and Gällivare in Sweden; the ICEHOTEL in Jukkasjärvi; the winter market in Jokkmokk; visitors who make the journey above the Arctic circle can buy reindeer fur from local merchants.





대한항공은 일스케로 일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Amsterdam three times a week.

● **찾아가는 길** 라플란드로 가려면 플레오를 거친다. 스웨덴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에 걸리지 않는 플레오에서 오크모크에서 버스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다. 다른 경로는 비행기로 헬리베리나 아이비스 야우로 이동을 오크모크로 가는 버스를 타는 방법이다. 헬리베리 공장은 오크모크에서 북쪽으로 1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인랜드스반 뱀자 (www.inlandsbanan.com) 중 오크모크까지 가는 지역 열차를 타면 우리베르에 정차하는데 여기서부터 오크모크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오크모크에서는 차 없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마을 전체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든 도보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

● **추천 숙박지** 30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오크모크 시장에서는 1주일 동안에는 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여드니 미리 예약해두자. 헬메시 호숫가의 오크모크 호텔 (www.hoteljokmokk.se)은 시내 중심가와 아이비 박물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자리해 있다. 아담한 숙박 시설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에스시 호텔이 있다. 객실 50개인 이곳은 벽난로를 갖춘 라운지와 사우나 시설이 있다. 3시간의 이동 거리를 감수한다면, 유카세르비에 위치한 아이스 호텔(www.icehotel.com)도 좋다. 모든 객실이 얼음으로 만들어질지만, 창문이 재공되고 순록 털을 침대로 사용한다. 오크모크 관광청(www.turism.jokmok.se/en/accommodation.aspx)에서는 겨울철에 이용 가능한 숙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추천 먹을거리** 호재 언어, 순록과 우스 고기, 야생 버섯 등 오크모크 토속 음식을 즐겨보자. 비데르나스 후스에 위치한 사메르나스 레스토랑(www.viddemaarhus.se)은 사미족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데 사미족 전통 요리로 만든 요리, 순록의 피로 만든 '링스' 등 전통 음식을 내놓는다. 오크모크 시장에서는 순록 순록 고기인 '수오비스'를 순록 기름으로 불인 불에 구워 주니파나 알과 내놓는 요리를 먹어보길 권한다.

● **GETTING THERE** The main gateway to Swedish Lapland is Luleå. The flight from Stockholm is about one hour. From Luleå, it's a three-hour bus ride to Jökömök. You can also fly into Gällivare and Arvidsjaur where you can take a bus to Jökömök. Gällivare Airport is 100km north of Jökömök. In addition to the historic Inlandsbanan (www.inlandsbanan.com), you can take a regional train up to Jökömök which stops at Murjek — an hour bus ride from Jökömök.

● **WHERE TO STAY** Accommodation in Jökömök during the market season can be tricky to secure because it is a small village of 3,000 that welcomes upwards of 30,000 people over a week, so try to book months in advance. Located along the shores of Lake Tälvis is Hotel Jökömök (www.hoteljokmokk.se) with 89 rooms. It is a five-minute walk to the center of town and the Sámi museum. A smaller, cozier option is family-run Hotel Gästa, with 50 beds available as well as a lounge with a fireplace and a sauna. ICEHOTEL (www.icehotel.com).



ICEHOTEL

com) in Jukkasjärvi, about three hours from Jökömök, has rooms completely made from ice. You will be bundled up in a sleeping bag and will sleep in the warmth of reindeer fur.

● **WHERE TO EAT** Forget the familiar and try to dig into local delicacies like smoked salmon, reindeer, moose meat and wild mushrooms while you're in Jökömök. You can head over to Restaurang Samernas (www.viddemaarhus.se), in Viddemas Hus, where you might find Sámi elder and slow food culinary ambassador, Greta Huuva, in the kitchen. Huuva cooks up seasonal dishes like dried reindeer meat and smoked reindeer tongue, as well as kams, chunks made of curdled reindeer blood. She runs Restaurang Samernas along with her family. While at the market, be on the lookout for freshly made suovas, which is reindeer meat smoked and cooked over open flames in reindeer fat and served with juniper or lingonberries.

자세한 정보는 www.icehotel.com을 참조하십시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HANJIN TRAVEL](http://www.hanjintravel.com) www.kaltravel.com

Crocodile



www.crocodilelady.com